

광주FC, 빛처럼 빨라진다



광주FC
동계훈련

태국 코사무이=김여울 기자

‘빛의 팀’ 광주FC 더 빨라진다. 광주는 이정호 감독의 지휘 아래 태국 코사무이에서 1차 동계훈련을 갖고 2025시즌 밀그림을 그리고 있다. 매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모습을 끌어냈던 이정호 감독은 이번 시즌에도 업그레이드된 전술을 준비하고 있다. 앞서 새 시즌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왔던 이정호 감독이지만 올해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효불 2025버전’을 묻는 말에 이정호 감독은 “선수들도 또 변화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면서도 “미디어에 광범위하게 설명했었는데 이야기 안 하려고 한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웃었다. 이정호 감독은 “어떤 부분을 이정호 감독이 원하는지, 뭐가 바뀌었는지 생각하면서 직관하시면 재미있을 것이다. 보시고 안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관심 있게 몰입해서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바뀌었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작지만 큰 변화를 예고한 이정호 감독, 선수들이

빠른 템포의 압박 축구로 2025시즌 승리 노려 주장 이민기 “상대팀 체력·기술적으로 힘들 것”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템포’다. 올 시즌 안영규에 이어 선수단 전반에 서게 된 ‘주장’ 이민기는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다. 상대가 체력적으로 기술적으로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광주팬들은 물론 다른 구단 팬들의 눈길까지 사로잡을 광주의 2025 축구를 예고했다. 이제 막 프로를 경험하고 있는 ‘고졸 루키’ 이재환도 직접 경험하고 있는 광주의 템포에 깜짝 놀랐다. “영상으로 봤을 때도 템포 이런 부분이 확실히 빠르는데, 훈련도 마찬가지다. 이제 스피드 따라하고 있다”고 숨가쁘게 움직이는 광주의 축구와 훈련을 이야기했다. 순간 스피드가 좋은 ‘이적생’ 권성윤도 적응의 시간을 보내느라 동계 훈련 초반에는 정신이 없었다. 권성윤은 “감독님의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하다가 공을 뺏겼을 때 바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몸에 배어있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템포가 엄청 빠르기 때문에 처음에 적응을 못 했다. 수비적인 부분도, 공격적인 부분도 잘할 수 있게 적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팀 역사상 첫 준프로 선수인 김윤호(금호고 3년)도 자신의 강점인 스피드를 바탕으로 광주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다.

김윤호는 “프로에서 뛰기 위해 형들 힘도 그렇고 템포도 더 따라가야 한다. 자체 경기할 때 감독님께서 두 팀 모두 압박을 하라고 하신다. 압박했다가 풀리면 다시 내려와야 하고 정말 빠르다”며 빠른 템포의 압박 축구를 이야기했다. 김윤호의 이야기처럼 선수들은 자체 연습경기가 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김진호는 “상대를 무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팀하고 경기하는 게 더 낫다. 자체 연습경기를 하면 두 팀 모두 감독님이 원하는 똑같은 축구를 하고 있고, 서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정말 힘들다”고 말했다. 이강현도 “고개 들 시간도 없다”고 웃었다. 이강현은 “엄청 빠르다. 같은 축구를 전원이 하니 정말 힘들다. 서로 템포에 적응하고 있으니까 힘들다. 공 뺏기면 또 뺏고 고개 들 시간도 안 준다. 수준이 높아져서 그런지 더 힘들다. 다른 팀에 비해서도 빠르다”고 광주의 ‘빛축구’를 이야기했다. 상대를 압박하면서 빠른 템포로 경기 흐름을 주도하려면 사실 광주 선수들이 더 힘들다. 설 팀 없이 움직이고 뛰고 있는 선수들은 훈련 시간 외에는 체력 다지기에 공을 들고 있다. 이정호 감독도 체력적인 부분을 세분, 전문화해 전술의 바탕을 다지고 있다.



태국 코사무이에서 동계훈련 중인 광주FC가 더 빨라진 템포의 압박 축구로 2025시즌 승리를 노린다.

이민기는 “피지컬 트레이너 선생님이나 의무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물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신다. 스케줄도 담당 파트에서 짜서 감독님한테 드리면 믿고 맡겨주신다.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따라가고 있다. 잘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미있는 축구를 지향하면서 팬들의 사랑을 받아 온 광주와 이정호 감독. 올 시즌에도 눈 돌릴 틈 없는 광주 축구의 매력을 보여주기를 위해 선수들은 혼신을 다해 달리고 강철 체력을 키우고 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광도규 연봉 수직상승 “나도 역대 연봉”

263.6% 오른 1억2000만원
투수 황동하·윤영철도 ‘역대’
KIA, 45명 중 44명 재계약



황동하와 김도현은 3500만원에서 각각 1억원과 9000만원에 계약을 끝냈다. 윤영철의 연봉도 9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33.3%)으로 오르면서 마운드 ‘젊은 피’ 광도규,

윤영철, 황동하가 나란히 첫 역대 연봉을 장식했다. 베테랑 김태균과 함께 안방을 든든하게 지킨 포수 한준수는 5000만원에서 180% 오른 1억4000만원에 계약을 하면서 프로 8년 차에 역대 연봉자 대열에 합류했다. FA를 앞둔 내야수 박찬호는 1억5000만원이 인상된 4억5000만원의 연봉에 재계약했다. 변우혁은 6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41.7% 인상됐다. 박찬호와 함께 예비 FA인 외야수 최원준은 2억 2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81.8%)이 인상된 4억원에 계약을 끝냈다. 박정우의 연봉도 3800만원에서 6500만원으로 71.1% 인상됐다. 앞서 ‘슈퍼스타’ 김도영은 1억원에서 5억원으로 연봉이 수직 상승하면서 팀 내 FA와 외국인 선수를 제외한 비FA 선수 중 ‘연봉킹’이 됐다. 김도영은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 4년 차 역대 최고 연봉 기록도 갈아치웠다. /김여울 기자 wool@

KIA 타이거즈 좌완 광도규(사진)가 263.6%라는 구단 역대 투수 연봉 최고 인상률을 기록했다. KIA가 2025시즌 연봉 재계약 대상자 45명 중 투수 김사윤을 제외하고 44명과 계약을 완료했다. 지난 시즌 배정투로 정규시즌은 물론 한국시리즈에서도 활약을 펼친 광도규가 1억2000만원에 사인했다. 지난해 3300만원에서 263.6% 인상된 금액으로 구단 역대 투수 최고 인상률이다. 마무리 정해영은 2억원에서 80%가 상승한 3억 6000만원에 연봉 도장을 찍었다. 지난해 선발 줄부상 위기에서 빈틈을 잘 채워준



광주FC, 아챔리그 유니폼 공개

광주FC가 2025시즌 아시아 무대에서 선보일 새 유니폼(사진)을 공개했다. 광주는 22일 콜스튜디오와 함께 제작한 2025 시즌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유니폼 ‘Light of Glory Season 2’를 발표했다. 2025시즌 ACLE 유니폼은 리그 유니폼과 마찬가지로 ‘빛’을 메인 콘셉트로 해 광주의 상징과 의미를 표현했다. 디지털 프린팅을 이용한 승화전사 기법을 통해 유니폼 전면에 광주의 정체성을 빛으로 형상화한 그래픽을 삽입했다. 뒤편 넥라인에는 ‘Light of Glory’ 문구를 넣어 지난 ACLE 개막전에서 요코하마(일본)를 상대로 7-3 대승을 거두는 등 동아시아 그룹 2위에 자리한 힘을 다시 보여주겠다는 각오다. 유니폼은 통일성을 강조해 디자인했다. 홈 필드 유니폼은 구단을 상징하는 옐로우 컬러에 네이버를 조합했고, 버건디 컬러로 포인트를 줬다. 어웨이 필드 유니폼은 화이트 컬러와 버건디 컬러를 대비해 세련된 느낌을 극대화했다. 골키퍼 유니폼은 각각 그레이 컬러와 민트 컬러로 제작했다. 한편 ACLE 유니폼은 2월 3일부터 구단 및 골



이정호 감독

스튜디오 온라인 스토어와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세부 일정과 자세한 내용은 구단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



‘킹’ 막기 힘들네 22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24~2025 NBA 정규시즌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와 워싱턴 위저즈의 경기에서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왼쪽)가 레이업을 하고 있다. 레이커스가 111-88로 대승을 거뒀다. /연합뉴스

이치로, 아시아 첫 MLB 명예의 전당 입성

만장일치에 한 표 모자라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를 뜨겁게 달궜던 ‘안타 기계’ 스즈키 이치로(51·일본·사진)가 아시아 선수로는 최초로 MLB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명예의 전당 입성자를 선정하는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22일 오후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이치로는 전체 394표 가운데 393표를 획득, 득표를 99.75%를 기록했다. 이번 명예의 전당 투표는 이치로의 만장일치 현역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였다. MLB 역사상 만장일치로 명예의 전당에 입성한 건 마무리 투수의 대명사인 마리아노 리베라(2019년)뿐이다. 테리 지터(2020년·득표율 99.75%), 켄 그리피 주니어(2016년·득표율 99.32%), 톰 시버(1992년·득표율 98.84%), 놀란 라이언(1999년



·98.79%), 칼 립켄 주니어(2007년·98.53%), 타이 콥(1936년·98.23%) 등 전설적인 선수들도 실패했던 게 만장일치다. 이치로는 2020년 지터처럼 만장일치에 딱 1표가 모자랐다. 이치로는 일본프로야구 오릭스 버펄로스에서 9시즌을 뛰고 2001년 시애틀 매리너스와 계약해 MLB에 뛰어들었다. 태평양을 건넌 첫해부터 그는 무서운 기세로 안타를 적립하며 ‘전설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01년 신인으로 이치로는 242개의 안타를 때려 신인상과 최우수선수(MVP)를 석권했다. 그는 빅리그에서만 19시즌 동안 3089개의 안타를 때렸고, 일본프로야구 기록(1278개)을 합하면 프로 통산 4257개의 안타를 남겼다. /연합뉴스